

코스피	2501.24 (+20.61)	코스닥	677.01 (-3.66)
금리 (연·달리)	2.816 (-0.013)	환율 (원·달러)	1406.40 (+8.90)

생산·내수·수출 ↓... 트럼프 2기 출범땀, 제조업 전망 ‘암울’

경고등 커진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전문가 서베이 지수 내달 업황전망 PSI 기준치 아래로
산업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트럼프 2기, 韓 제조업에 부정적”

우리 경제의 기초산업인 제조업의 생산, 내수, 수출이 동반 하락할 것이라던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산업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발표했다. 이번 PSI는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3명이 이달 11일~15일까지 184개 업체에 대해 전망한 결과다. 조사 항목은 개별 산업 업황을 비롯해 국내 판매와 수출, 생산·재고수준, 투자, 채산성 등이다. 항목별 응답 결과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개선 의견이, 하회할 경우 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뜻한다.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전월 102에서 96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며 하회 전환했다. 업황 전망 PSI가 기준치를 하회한 건 1년 전인 202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내수(98)와 수출(97) 역시 기준치를 동반 하회하는 등 전월 대비 추가 하락세를 보이고, 생산(96)도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투자액(97), 채산성(91), 제품단가(95) 등 공급·수익 여건 또한 기준치를



정의선, 도요타 아키오와 한 달 만에 재회

그림 회장과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그룹 회장이 일본에서 다시 만났다.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월드벨리챔피언십(WRC)’ 현장에서 정 회장은 도요타 가주레이싱팀의 서비스 파크를 찾아 경기 현장을 둘러보고 아키오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1위와 3위 수장인 두 회장이 만나기는 지난 10월 27일 한국 용인에서 열린 ‘현대N x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 이후 두번째다. 정 회장(왼쪽)과 아키오 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모터스포츠를 매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그룹 회장이 일본에서 다시 만났다.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월드벨리챔피언십(WRC)’ 현장에서 정 회장은 도요타 가주레이싱팀의 서비스 파크를 찾아 경기 현장을 둘러보고 아키오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1위와 3위 수장인 두 회장이 만나기는 지난 10월 27일 한국 용인에서 열린 ‘현대N x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 이후 두번째다. 정 회장(왼쪽)과 아키오 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유형별 업황 전망을 보면, 기계(103) 부문이 기준치 이상을 유지했고, ICT(90)·소재(85)부문은 동반 하회했다. 전월 대비로 ICT는 4개월 연속 하락, 소재는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세부업종별로는반도체(124)·자동차

(107)·조선(113)·바이오/헬스(110)업종이 100을 상회한 반면, 디스플레이(73)·전자(81)·기계(88)·화학(88)·철강(78)·섬유(88) 등 다수 업종이 상당폭 하락했다.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도 2개월 만에 다시 기준치에 그쳤고, 전월

(105)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내수(101)가 전월과 달리 소폭 상승한 반면, 수출(105)이 전월에 이어 추가 하락했고, 생산(100)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재고(113)가 전월과 달리 상승 전 호나하고, 투자(100)는 2개월 연속하락한 반면, 채산성(102)이 전월과 달리 상승 전환했다.

유형별 11월 업황 PSI는 ICT(97) 부문과 소재(95)부문에서 기준치를 하회 전환하고, 기계부문은 기준치를 소폭 상회 유지했다. ICT는 202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보다 아래였고, 소재 역시 전월과 달리 기준치를 동반 하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섬유·바이오/헬스 업종이 100을 상회한 반면, 디스플레이·휴대폰·기계·화학 업종은 동반 하회했다.

산업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제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업종별 부정적 영향은 철강·자동차·화학·섬유 등에서 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내 제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설문 결과, ‘부정적’이란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은 63.5%인 반면, ‘긍정적’이란 답변은 5.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3.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주요 업종별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칠 부정적 영향은 철강(5점 척도, 4.1) 업종에서 가장 컸고, 자동차(3.9), 화학(3.4), 섬유(3.4) 등 특히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2.6), 디스플레이(2.9), 바이오·헬스(3.0), 반도체(3.1) 등 ICT 업종을 중심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비교적 덜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신문·경제 ‘휴앤휴’ 2024 입주 아파트 조경 우수단지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니티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4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30여곳 입주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심사방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 수상명 : 대상, 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 ◆ 수상작 선정 : 11월 27일



국세수입 감소폭 OECD 2위... 올해 29조 ‘세수핑크’

작년 GDP 대비 세수비중 28.9% 3.1%p 줄어, 회원국 평균 -0.1%p

지난해 우리나라가 겪은 이른바 ‘세수핑크’가 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에서도 확인됐다. 전년 대비 국세(稅)수입 감소 폭이 회원국 중 2번째로 컸다.

24일 OECD가 홈페이지 상단에 게시한 ‘회원국 세수비중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28.9%로 집계됐다.

2022년(32.0%)보다 무려 3.1%포인트(p) 줄어 들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평균은 작년 33.9%로 전년(34.0%)과 비교해 -0.1%p를 기록했다. 총 38개 회원국 중 호주와 일본(미집계)을 제외한 36개국 평균이 2년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OECD는 “비중 관련 (마이너스) 3%p대의 큰 감소(변동 폭)가 한국 등 3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칠레가 -3.2%p로 감소 폭 1위, 한국

이 -3.1%p로 2위, 이스라엘이 -3.0%p로 3위다.

OECD는 비교대상 36개국의 절반인 18개국은 해당 비중이 2022년보다 상승했다고 전했다. GDP 증가 속도에 비해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걷힌 것이다. 그중 17개국은 감소했고 1곳(이탈리아)은 변동 없었다.

또 한국 등 3개국과 대조적으로, 룩셈부르크·콜롬비아·튀르키예에서 2.5%p 이상의 비중 증가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가 43.8%로 경제 규모 대비 세금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뒤를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이었다.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는 멕시코(17.7%)였다. 우리나라보다도 비중이 작은 미국은 25.2%로, 전년(27.6%)과 비교해 2.4% 하락했다. 한국과 미국은 작년 비중 순으로 각각 28위, 30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지난해 56조 원대의 세수결손

에 이어 올해도 29조 원대의 결손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수의 급감이 주요 원인이다.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1~9월 기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이 중 법인세는 무려 17조 4000억 원 났다.

지난달 하순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세수결손이 이어지면 3년 만에 100조 원 가까운 결손으로 차기 정권까지 재정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부자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세수결손은 고착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安 “단일화 과정서 명태균 도움 안 받아” /사진 뉴시스
▲민주, 홍철호 정무수석 사퇴 요구... “사과로 끝날 일 아냐”

▲민주 “김건희 특검 수용 않는 개각은 물타기용”
▲정부, ‘우크라 곡물로 식량부족국 지원’에 84억원



▲여, 민주 4차 장외 집회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본격화 신호탄” /사진 뉴시스
▲공무원 아빠 육아참여 늘린다...출산 휴가 10일→20일 확대